

●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11월 26일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11월 26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2014년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개정 내용과 한국전기규정(KEC) 제정을 위해 전기협회에서 조사·연구한 내용을 홍보하고, 일부 현안사항에 관한 전력산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주요 주제는 △2014년 주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안) 의견수렴(전기협회 김기현 팀장) △분산형전원 계통연계 기술기준과 적용사례(한전 오창수 차장) △전기설비기술기준 최근 질의 회신사례(전기협회 이충일 실장) △KEC 제정 현황 및 활용방안(전기협회 이강희 팀장) △KEC 고압전기설비 분야(제3편) 제정 현황(한전기술 이현수 부장) △KEC에 의한 전기설비 검사계획(전기안전공사 김한상 수석) △전기저장장치 시설기준 제정 및 도입방안(전기협회 신성수 과장) 등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부, 산업계, 학계 등 전력산업계 실무 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 신청은 11월 18일까지 전기협회 기술기준처(02-3393-7671)를 통해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한편, 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제98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62조 제5항 및 기술기준 운영요령에 의한 위탁기관으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정 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다.

● 전력기술교육원, 10월 27~31일 영등포공고 학생 대상 현장실습 특별교육 진행

대한전기협회 부설 전력기술교육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전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중배전전공 현장실습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양 기관은 지난해 5월 '상호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재학생 특별실습 교육을 실시해 전력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미래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전력기술교육원은 지난해 10월 영등포공고 전기과 1,2학년생 총 15명과 담임교사 1명을 대상으로 5일간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특별교육 역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실시될 예정인데, 교육 대상을 20명으로 늘려 진행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교육과정에서 실습 현장을 직접 견학한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면서 희망 학생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들 교육생들은 5일 동안 지중선 개요, 지중배전케이블 등 이론교육과 함께 공고 및 장비사용법, 조립형 직선접속, 조립형 종단 접속, 개폐기 엘보접속, 변압기 엘보 접속 등 실습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10월 29일에는 영등포공고 전기과 1학년생이, 30일에는 2학년생 전원이 특별교육 현장 견학을 위해 전력기술교육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전기협회는 이번 특별교육 비용과 관련,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 경감차원에서 실비에 교육을 진행한다.



지중배전 교육의 경우 2주 기준, 약 200만 원 정도 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그리고 일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장학사업 차원에서 전액 지원키로 했다.

전력기술교육원은 이번 특별교육과 관련해 전문 강사진을 배정하는 등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현장실무 경험을 전수받고 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전기협회, 미래 50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논의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23일 '미래 50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 3차 중간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전기협회는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경영전략 체계를 재정립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와이즈포스트는 전기협회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대외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전기계 중심 역량 강화 △국내 기술기준 및 표준의 글로벌화 △사용자 중심의 기술, 기술기준 및 표준 확대 △기술, 기술기준, 표준의 체계 향상 및 고도화 △선진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협회 역량 강화 등 5대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E-Korea를 실현하는 전기산업계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전기협회는 이날 제시된 발전계획(안)에 대해 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전기협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 10월 중으로 '미래 50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최종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기술기준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해설교육 실시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청소년수련관 (중구 수표동 소재) 세미나실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해설교육'을 실시했다.

사흘간 진행된 해설교육은 전기설비 기술기준과 판단기준, 내선규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들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최근 동향 △내부 피뢰대책 기법 △사고사례와 보호협조 △전선로, 배선설비 및 저압기기의 시설 △전로의 절연 및 접지 등 전기협회와 주요기관 및 기업 전문가들의 강의로 꾸며졌다.

이를 통해 최신의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판단기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실무기술 파악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2014년도 마지막 해설교육은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기협회 승격 인사〉

△손명성 KEPIC처 사업총괄팀장 △이강희 기술기준처 KEC팀장(이상 3직급) △이상협 기술기준처 차장 △이금환 기술기준처 차장 △이창수 경영지원처 차장(이상 4직급) 